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중첩분장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인화상감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bleware Using Duplicating Decoration
-Focusing on Inlay Technique-

2017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박 성 민

중첩분장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인화상감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bleware Using Duplicating Decoration
-Focusing on Inlay Technique-

지도교수 김 중 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박 성 민

박성민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3
1. 인화상감기법의 일반적 고찰	3
1) 인화상감기법의 개념	3
2) 분청사기의 이해와 역사적 배경	5
3) 인화상감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	6
2. 중첩의 일반적 고찰	7
1) 중첩의 개념	7
2) 예술에서의 중첩	8
3) 중첩을 표현을 통한 도자 작품 사례	10
3. 테이블웨어의 일반적 고찰	13
1) 테이블웨어의 개념	13
2) 테이블웨어의 역할	13
2) 식문화에 따른 테이블웨어 분류	14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8
1. 제작의도 및 작품계획	19
2. 제작과정	19
1) 기물의 형태 및 성형	19
(1) 형태	19
(2) 소지 및 성형	21
2) 인화기법의 도구 및 방법	21
(1) 인화기법의 도구와 효과	21
3) 화장토 제작 및 색화장토 실험	23

(1) 화장토 제작	23
(2) 배색을 위한 색화장토 실험	23
4) 시유 및 기물 표면 연마	27
3. 작품해설	28
 IV. 결론	 37
 참고문헌	 38
영문초록(Abstract)	39

요 약

제 목 : 중첩분장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인화상감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테이블웨어는 첨단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되면서 획일화 되었으며 유일성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삶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욕구와 개성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대량생산의 의해 생산된 획일화 된 테이블웨어와는 달리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개성을 지닌 테이블웨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테이블웨어 본연의 필수적인 실용성뿐만 아니라 장식과 예술성이 겸비된 테이블웨어의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도자장식기법 중 하나인 분청사기의 인화상감기법을 통해 색화장토를 이용하여 중첩분장 함으로써 과거의 재료적 한계성을 넘어 도자장식의 미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응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인화상감기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인화상감기법에서 나타는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인화상감기법을 응용한 작품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첩의 개념과 예술에서의 나타는 중첩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도자작품을 통하여 중첩이 표현된 작품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웨어의 일반적 고찰로 테이블웨어의 개념과 현재의 테이블웨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작품제작 및 해설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의도 및 작품계획, 제작과정 작품해설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작품계획에서는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하며 장식이 용이한 테이블웨어를 구성하고 디자인하였다. 제작과정은 인화상감기법의 다양한 도구를 통한 색화장토 중첩분장 실험과 중첩분장의 배색을 위한 색화장토 실험을 진행하여 테이블웨어 표면장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화상감기법의 도구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양의 특징을 알 수 있었고, 색화장토의 실험을 통하여 배색에 따른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화상감기법과 색화장토의 실험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를 테이블웨어 표면장식에 응용하여 기물 표면의 장식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향후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테이블웨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도자장식기법의 연구가 이루어져 현대 도자장식의 응용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표 목 차

[표 1] 한국의 전통 한식시	16
[표 2] 서양의 테이블웨어	17
[표 3] 압인 도구와 도구에 의한 효과	22
[표 4] 색채의 의미	23
[표 5] 배색	24
[표 6] 산화소성 색화장토 실험	24
[표 7] 환원소성 색화장토 실험	24
[표 8] 투명유 조합비(%)	24
[표 5] 배색	24

도 목 차

[도 1] 목상감(木象嵌)	3
[도 2] 나전(螺鈿)	3
[도 3] 입사(入絲)	4
[도 4] 상감(象嵌)	4
[도 5] 분청사기 구름 용무늬 항아리	4
[도 6] 박정홍, 「에노시마의 고양이」, 2013	6
[도 7] 손호익, 「백자상감접시」, 2015	6
[도 8] 김보경, 「실린더」, 2010	7
[도 9] 김진익, 「Counter-shading No.8」, 2015	7
[도 10] 형태를 떨어뜨려 구성한 경우	8
[도 11] 형태를 중첩하여 구성한 경우	8
[도 12] Pablo Picasso, 「테이블위에 놓인 신문」, 1913	9
[도 13] Robert Rauschenberg, 「Monogram」, 1955	9
[도 14] Vladimir Tatlin, 「The Third International」, 1919	10
[도 15] Chambers Mathew, 「Tripartite 2」, 2014	11
[도 16] 권오훈, 「Orbit」, 2015	11
[도 17] 이민수, 「Cylinders」, 2012	12
[도 18] Manos kalamenios, 「Amoeba Bowl」, 2016	12
[도 19] Miyashita Zenji, 「Billow」, 2008	12

[도 20] Jun Kaneko, 「Dango」, 2009	12
[도 21] 접시 Set 도면 / 단위(mm)	19
[도 22] 찬기小 도면 / 단위(mm)	19
[도 23] 찬기中 도면 / 단위(mm)	19
[도 24] 밥그릇 도면 / 단위(mm)	20
[도 25] 국그릇 도면 / 단위(mm)	20
[도 26] 컵 도면 / 단위(mm)	20
[도 37] 초벌 후 3M 스펀지를 이용한 사포 연마과정	27

작 품 목 차

[작품 1] Inlaid Plate	28
[작품 2] Inlaid Plate	29
[작품 3] Inlaid Tableware	30
[작품 4] Inlaid Tableware	31
[작품 5] Inlaid Cup	32
[작품 6] Inlaid Tableware	33
[작품 7] Inlaid Tableware	34
[작품 8] Inlaid Bowl	35
[작품 8] Inlaid Cup	36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공예품은 첨단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량생산은 속도지향성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를 가속화시켰으며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생산되었다. 기계적 대량생산에 의해 공예품들은 동일성의 통념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예품들은 획일화 되었고 유일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현대의 기계가 인간의 손의 기능을 대신 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수공예적 작업들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소비자들은 획일화 된 기계의 공예품과는 달리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개성을 지닌 인간의 수공예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공예품들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공예품의 변화 속에서 현대의 테이블웨어 또한 본연의 필수적인 실용성뿐만 아니라 형태와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장식성과 예술성까지 겸비되어 생산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음식문화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오감만족의 식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인들의 식·공간과 테이블웨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섬세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형태, 장식 등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능력과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섬세한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공예적 장식이 가미된 차별화 된 테이블웨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테이블웨어 표면에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장식기법인 분청사기의 기법 중 하나인 인화상감기법을 중심으로 색 화장토의 중첩분장을 통하여 과거의 재료의 한계성을 넘어 도자장식기법의 미적 가치를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이에 전통 도자장식 기법인 인화상감 기법을 중심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도구와 소재를 달리 하여 문양을 보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하나의 패턴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다양한 도구에 따른 다양한 크기 및 형태가 시문된 문양 위에 여러 색의 색화장토를 중첩분장하고 다시 깎아내는 작업과정을 통하여 중첩되어진 색의 층을 보여주는 효과를 표현하여 현대 도자장식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테이블웨어의 표면장식을 보다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장식기법인 인화상감기법과 중첩분장을 응용하여 문양을 다양화 시키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연구로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화상감기법과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작품 사례들을 분석하여 살펴본다.

둘째, 중첩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중첩에 의해 표현된 도자작품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적용하여 표현되었는지 분석한다.

셋째, 테이블웨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테이블웨어의 역할과 동·서양의 식문화에 따른 테이블웨어의 분류 및 특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확장된 개념의 테이블웨어의 의미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이블웨어의 종류는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으로 국한하고 기능성에 중점을 두어 장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 한다.

둘째, 디자인한 테이블웨어의 제작은 물레용 백색소지를 사용하고, 물레 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셋째, 기물 표면에 인화하여 음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자연물과 인공물에서 찾아보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문양의 특징을 알아보고, 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실험한다.

넷째, 여러 가지 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색화장토 실험을 한 후 명도대비, 동시대비, 보색대비 등 다양한 배색을 통하여 색상의 대비효과를 줄 수 있도록 중첩분장한다.

다섯째, 초벌 후 3M 스폰지 사포를 이용한 연마의 강도의 따라 문양과 색의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단계별 연마의 과정을 통해 기물 표면 평면화 작업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화상감기법의 일반적 고찰

1) 인화상감기법의 개념

전반적인 공예분야에서 숙지된 인화기법과 상감기법을 결합한 인화상감기법은 칼이나 도장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태토표면을 음각한 뒤 문양부분을 백토를 채워 넣는 일련의 시문공정이다. 따라서 상감기법은 조각칼로 문양을 음각하는 방식이 음각상감에서는 도장을 찍는 것을 대체되었을 뿐, 오목하게 들어간 문양 부분을 다른 색의 태토로 감입하는 과정을 상감과 동일하다. 이는 곧 인화기법과 상감기법은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¹⁾

공예분야에서 ‘상감(象嵌)’이란 도자기를 비롯한 금속, 목재,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기물 표면에 조각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홈을 파내거나 무늬를 새겨서 그 안에 같은 재료의 흙, 금속, 뼈, 보석, 자개 등을 감입하여 표면에 무늬를 나타내어 보다 장식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장식기법을 말한다.

상감기법은 크게 재료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도자, 금속, 나무, 자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조된 금속기의 표면에 흙을 파고 다른 금속을 두드려 박는 것을 입사(入絲), 목재의 표면에 흙을 내고 색이나 나뭇결이 다른 나무를 감입하는 것을 목상감(木象嵌), 얇게 간 조개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올려내어 기물의 표면에 감입시켜 꾸미는 것을 나전(螺鈿), 도자의 표면에 상감한 것은 상감이라 일컫는데 이들은 재료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매우 유사한 장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예분야에서 나타나는 상감기법은 재료적 특성과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도 1] [도 2] [도 3] [도 4]



[도 1] 목상감(木象嵌)



[도 2] 나전(螺鈿)

1) 구유리, 「조선전기 인화상감자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7



[도 3] 입사(入絲)



[도 4] 상감(象嵌)

도자공예에서의 ‘상감(象嵌)’ 기법은 인화기법과 같은 분청사기의 표면장식 기법 중 하나로 기물 표면에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음각 한 뒤 음각된 부분을 화장토를 붓으로 분장한 뒤에 건조가 되면 문양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양 주위를 곱게 벗기거나 굽어내 문양을 나타내는 장식기법이다. 분청사기에서 나타나는 상감기법은 고려의 상감에서 사용된 역상감, 선상감, 면상감 등의 기법이 고루 사용되었다. 면상감은 나중에 박지기법으로 발전하였고, 선상감은 초기에 고려 상감무늬를 답습하다가 142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 분청사기만의 독특한 무늬로 변하게 되었다. 무늬로는 연당초, 연꽃, 버드나무, 모란당초, 갈대, 물고기와 돌림무늬 등이 있으며 때때로 이들 무늬는 도식화되거나 변형되어 새로운 무늬를 나타낸다.

‘인화(印花)’ 기법이란 분청사기의 표면장식 기법중 하나로 나무나 도자기에 문양이 양각된 소형 도장으로 기물표면을 압인하여 오목하게 음각된 부분을 화장토로 분장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장식기법이다. 인화기법은 상감기법에서 일일이 문양을 파는 수고를 덜기 위해 도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문양을 만들어내는 상감기법의 간소화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장을 찍듯이 그릇 위에 연속된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은 통일신라시대의 향아리 문양에도 찾아볼 수 있으나 당시는 요철(凹凸) 효과만을 기대하였고, 상감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분청사기의 인화문 기법은 동일한 도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찍은 것이 특징이다. 인화문의 종류에는 국화꽃 문양을 찍은 국화문(菊花文), 발을 내려뜨린 것 같은 승령문(繩簾文), 그리고 동그란 원을 두 개를 새겨 찍은 화관문(花冠文) 등이 있으며, 이를 주문양으로 하여 우점문, 당초문, 완자문, 연판



[도 5] 분청사기
구름 용무늬 향아리

문, 나비문, 학문, 연주문 등이 조화를 이루었고, 초기에는 커다란 개체로 표현되다가 점차 크기가 작아지고 집합적인 문양으로 변하였다. 특히 인화분청사기에는 관사, 생산지, 생산자명이 표기된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 5]는 국보 제 259호로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을 사용하여 운룡문과 여의두문을 새긴 작품으로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분청사기의 이해와 역사적 배경

인화상감기법은 분청사기의 장식 기법 중 하나로 표면을 백토로 분장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화상감기법의 역사는 분청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분청사기란 제작 그 당시의 용어가 붙여지지 않았고,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 당시에는 어떤 명칭으로 지칭하였는지 그 근거를 찾아 볼 수는 없다.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청자에 흰색 분을 발라 구운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분청자(粉靑瓷)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분청사기라는 명칭은 1930년대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미시마(三島)’란 용어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미술학자였던 고유섭이 고려청자의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한 가운데 조선 왕조 초기의 그릇을 청자 발전 과정의 산물로 해석하고 이를 1941년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砂器)’라고 명명하였으며,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분청사기의 종류에는 그릇을 화장토를 사용하여 어떻게 꾸미는가에 따라 인화(印花)기법, 상감(象嵌)기법, 조화(彫花)기법, 박지(剝地)기법, 철화(鐵畵)기법, 귀얄기법 총 7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각기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분청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 특색을 보이는데 경상도에서는 인화 분청사기, 전라도에서는 박지기법과 조화기법이 유행하였고, 충청도에서는 철화기법기가 유행하였다.

분청사기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백자와는 다른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는 도자기로 흔히 백성들의 활달한 취향을 반영한 도자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실에서부터 관청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초월하여 사용된 도자기이다.

분청사기의 기술은 고려시대 말기인 14세기경 퇴락해갔던 상감청자에서 변모, 발전하였다. 다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시대적인 측면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시문된 문양과 기법이 고려청자와는 차이가 있어 고려청자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분청사기는 조선왕조의 기반이 닦이는 세종연간(1419~1450)을 전후하여 그릇이 질(質)이나 형태 및 무늬의 종류, 무늬를 넣는 기법 등이 크게 발전하여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조선 도자공예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경기 광주 일대에 백자(白瓷)를 생산하는 관요(官窯)가 운영되면서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의 공급은 광주분원(廣州分院)에서 맡게 되자 관장제수공업체(官匠制手工業體)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분청사기의 생산은 점점 소규모화되면서 민간용을 주로 생산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앙관요의 영향이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백자의 생산이 계속 증가되었으며,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분청사기의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백자만이 남아 조선시대 도자기의 주류가 되었다.²⁾

분청사기는 고려 상감청자에서 비롯되어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걸쳐 약 150년간 만들어졌다. 분청사기는 고려시대 말 상감청자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상감청자의 귀족적이고 우아한 세련미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자나 백자에서 볼 수 없는 투박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분장기법이다. 그리고 그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서 때로는 대담하게 생략, 변형시켜 재구성한 생동감 있는 독창적이면서 소탈한 무늬라고 할 수 있다.

3) 인화상감기법을 이용한 작품 사례



[도 6] 박정홍,
「에노시마의 고양이」, 2013



[도 7] 손호익,
「백자색상감접시」

[도 6] 박정홍 작가의 「에노시마의 고양이」라는 작품은 물레의 회전에 의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선으로 상감하여 선으로 음각된 부분에 색화장토를 채워 넣어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한 만든 작품이다.

2) [네이버 지식백과] 분청사기 [粉靑沙器] (두산백과)

[도 7] 손호익 작가의 「백자색상감접시」 작품은 과거에 분청사기에서 사용 하던 방식인 인화기법으로 크기가 다양한 꽃문양의 도장을 사용하여 압인한 뒤 여러 색의 색화장토를 분장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과거의 분청사기의 인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도 8] 김보경,
「실린더」, 2010



[도 9] 김진의,
「Counter-shading No.8」

[도 8] 김보경 작가의 「실린더」 작품은 물레성형기법을 이용하여 형태를 제작하였고, 기물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층을 형성해 그 층 위에 선상감을 한 작품이다. 기물의 두께가 얇아 기물외부의 선상감이 기물내부에도 흐릿하게 비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 9] 김진의, 「Counter-shading No.8」 작품은 선상감이 아닌 면상감을 활용한 작품으로 면으로 음각 된 부분에 색의 톤의 변화를 이용하여 분장하였고, 선과 톤의 변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 혹은 시각효과를 창조해냈다.

2. 중첩의 일반적 고찰

1) 중첩의 개념

중첩(Overlapping)의 사전적 의미는 ‘일부분이 일치하다’, ‘중복하다’, ‘겹치(어 지) 다’ 라는 사전적 의미로 한 장면이 다음 장면과 겹치는 일³⁾을 뜻하며,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에 따르면, “중첩은 계속적인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편중 하나이다. 중첩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가 가릴 때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한 대상 안이나 여러 대상의 배치에서 생길 수 있다.” 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G, 케페스 (Gyorgy Kepes)는 중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포켓영한사전, 민중서림, 2002 p.595

4)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서울 미진사, 1995), p.114

“만일 하나의 공간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려 볼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뒤에 가려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겹쳐있는 형상을 볼 때 첫째의 것, 즉 맨 앞의 것은 두 개의 공간적 의미 그 자체와 그 자체 밑에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다른 형상의 볼 수 없는 표면을 가린 형상은 더욱 가까운 것으로 지각된다. 우리는 공간적 차이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중첩의 표현은 깊이를 가리키며 그것은 공간감을 일으키게 된다.”⁵⁾ 따라서 중첩은 여러 일정한 단위나 형태를 겹치는 것을 뜻하며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2차원 평면에서도 3차원적 깊이감과 공간감을 표현 해 낼 수 있다. [도 10], [도 11]에서 비교하여 하였을 때 볼 수 있듯이 [도 10]은 각기 다른 형태가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도 11]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들이 서로 겹치게 구성하여 공간감과 깊이감이 생겨난 걸 볼 수 있다.



[도 10] 형태를 떨어뜨려 구성한 경우 [도 11] 형태를 중첩하여 구성한 경우

이렇듯 공간구성에서 중첩배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것은 각 공간을 이동하는 관찰자에게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연결되는 공간사이에 미묘한 연속성을 부여한다.⁶⁾

2) 예술에서의 중첩

중첩은 20세기 초 큐비즘에서 시작 되었으며, 회화적으로는 ‘폴칠하다’, ‘바르다’의 의미로서 1912년 당시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 큐비즘을 비롯한 기하학적 추상회화는 새로운 공간개념을 받아들여 그들의 예술사조형식을 개발해 나갔다. 큐비즘 회화로부터 생선된 콜라주 기법은 근대회화와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에서도 데스틸과 러시아 구성주의는 콜라주 기법을 각기 적절한 방법으로 회화와 건축

5) 조지 케페스 (Gyorgy Kepes), 『시각언어』 유한태 역 (대광서림, 1998), p.76

6) 이정주, 「현대자수에 설치방법에 있어서 중첩과 반복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19

에 적용시켰는데, 이러한 예술에 새로운 공간개념 도입과 시도에 있어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중첩’이라는 개념이었다.⁷⁾ 이렇게 회화에서의 ‘중첩’의 개념은 큐비즘에서 비롯하여 데 스틸과 구성주의로 발전되면서 현대미술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큐비즘은 조형적으로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로 된 화면 구성을 의미하며 투명 효과를 이용해 서로 겹치거나 전체화면을 분리하여 일정한 순서로 나란히 배열하고 대상을 조각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면도 강조하지 않고 대상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하나의 화면 속에 집약시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⁸⁾ 큐비즘에서 가장 두드러진 방식은 콜라주(Collage)와 아상블라주(Assemblage)가 대표적이다. 콜라주는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화면의 구도, 채색효과,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유화의 한 부분을 신문지나 벽지, 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여 2차원의 평면을 구성한 것이다. 콜라주에서 비롯되었으며, 프랑스어로 ‘집합 · 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또는 3차원적의 입체작품으로 폐품이나 일용품등 여러 물체를 모아 화면에 붙여 구성하는 것으로 콜라주가 평면적인 데 대하여 아상블라주는 3차원적이다.



[도 12] Pablo Picasso,
「테이블위에 놓인 신문」, 1913



[도 13] Robert Rauschenberg,
「Monogram」, 1955

데 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양식’을 의미하며, 몬드리안과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반데스버그, 건축가였던 리트벨트 등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모여서 결성한 신조형주의 운동으로 추상 미술의 한 유파다.

데 스틸의 예술가들은 공간 표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들은 4차원적 공간

7) 유명강, 「중첩과 반복에 의한 점유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3

8) 고선영, 「중첩이미지를 응용한 디지털 날염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0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들을 평탄한 면들로 자유롭게 분해한 다음 이들을 재조립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면의 접합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형태와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이 때 중첩의 역할은 면의 조합 체계 원리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원리는 개별 단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개념은 반데스버그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면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간적인 차원으로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중첩을 활용하였다. 그는 시간, 공간의 영역내에서 4차원적인 조형성의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4차원적 공간 개념의 표현이야말로 시각 예술의 중심적인 문제를 구현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형태에 대한 기존 개념은 변화되어, 내외부의 공간은 밀접하게 상호 침투되었고, 장식은 제거되는 대신 명쾌한 비례와 진실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작품에 투명성과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즉 실제 공간 개념을 표현해 내기 위해 면을 적당하게 배치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첩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⁹⁾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전후하여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일어나, 서유럽으로 발전해 나간 전위적인 추상예술 운동으로 이체의 재현, 묘사적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을 취지로 하며, 회화나 조각의 영역에서는 기하학적 추상의 방향을 취하였다. 또한 큐비즘의 공간개념에 영향을 자기표출로서의 예술이기보다는 공간구성 또는 환경형성을 지향했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예술작가들은 공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시각화하여 공간구성의 구체적인 운동감을 도입하였다.



[도 14] Vladimir Tatlin,
「The Third International」,
1919

이와 같이 20세기 초 회화에서의 표현된 중첩은 큐비즘을 비롯하여 데 스틸 러시아의 구성주의의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 및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았으며,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법의 요소로 사용되었다.

3) 중첩 표현을 통한 도자작품 사례

중첩은 평면이나 입체적인 형태를 간단한 구성을 통해 깊이감과 공간감을 부여해주고 작품의 다양성과 변화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많은 예술가들이 널리

9) 고선영, 「중첩이미지를 응용한 디지털 날염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1

사용하는 조형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첩의 원리와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들의 사례들은 현재는 도자작품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중첩을 활용한 도자작품의 사례들을 보면 도자작품에서의 중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중첩을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간을 활용한 중첩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채색기법을 활용한 중첩표현이 있다.

먼저 [도 16],[도 17],[도 18],[도 19] 의 작품들은 반복된 형태를 겹치거나 쌓아 중첩하여 깊이감과 공간감을 표현한 입체감 있는 작품이며, 동시에 작품의 율동성이나 방향성을 표현하고 있다.



[도 15] Chambers Mathew,
「Tripartite 2」, 2014



[도 16] 권오훈,
「Orbit」, 2015

[도 15] 챔버스 매튜(Chambers Mathew) 작가의 「Tripartite 2」 는 물레성형을 이용하여 만든 원형의 조각들을 작은 개체에서 큰 개체로 단계적으로 방향성을 주어 중첩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원형의 조각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로 이어진 공간의 깊이감을 준다.

[도 16] 권오훈 작가의 「Orbit」 은 기본형인 사각형을 구축하고 사각형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동적인 선을 나열하여 중첩을 표현하였다. 선의 중첩으로 사각형 틀에서 보이는 두께와는 다른 깊이감을 보여준다.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공간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입체적 작품과는 다른 안료와 화장토를 활용한 채색기법을 중심으로 중첩하여 표현한 작품의 사례이며, 색의 층을 여러 겹 중첩하여 화장토를 반복하여 쌓아 표현하는 방식이다.



[도 17] 이민수,
「Cylinders」, 2012



[도 18] Manos kalamenios,
「Amoeba Bowl」, 2016

[도 17] 이민수 작가의 「Cylinders」 는 이장물레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색의 색슬립을 중첩하여 만든 작품이다. 반복하여 색슬립의 층을 형성해줌으로써 작은 기물에 두께에 밀도감을 형성해 주었다.

[도 18] Manos kalamenios 작가의 「Amoeba Bowl」 은 원형으로 파여진 볼(Bowl)형태의 석고틀에 여러색의 색슬립을 중첩분장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기물 표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연마하여 중첩 된 색슬립의 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도 19] Miyashita Zenji,
「Billow」, 2008



[도 20] Jun Kaneko,
「Dango」, 2009

[도 19] Miyashita Zenji 작가의 「Billow」 는 부정형으로 된 여러 층의 매우 얇은 다른 색상의 흙을 점진적으로 층으로 붙이는 기법으로 중첩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먼 산의 언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기물표면의 부정형의 얇은 흙들의 층이 깊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 20] Jun Kaneko 작가의 「Dango」는 선과 사각형들이 중첩하여 구성되어 공간감을 형성해주고 입체감을 높여준 작품이다.

3. 테이블웨어의 일반적 고찰

1) 테이블웨어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의미하는 ‘테이블웨어(Tableware)’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그릇의 총칭’ 좀 더 넓은 뜻으로는 ‘음식을 담는 그릇 외에 조리기구, 저장기구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¹⁰⁾ 즉 테이블웨어는 음식을 담는 식기 외에 조리에 사용하는 도구, 저장하는 기구 등을 통틀어 테이블 위에 세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며 용(用)의 기능에서 출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테이블웨어의 역할

과거의 테이블웨어가 음식을 담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면 오늘날의 테이블웨어는 기능은 1차적으로 음식을 단순히 ‘먹는다’의 행위뿐만 아니라 ‘즐긴다’, ‘감상한다’라는 문화적 차원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음식을 담는 1차적인 기능이 대두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작가 또는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에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디자인 운동에서부터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더니즘 운동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테이블웨어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아름다운 물건”으로의 개념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도자 식기의 역할이 단순한 기(器)로써 음식을 담고 편리한 식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일상용품이 아니 식탁이라는 공간에서 사용자의 미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¹¹⁾

테이블웨어의 발전함에 따라 현대의 테이블웨어는 기본적인 음식을 담고 먹는 기능적인 역할과 동시에 식공간의 분위기 연출을 위한 심미적 기능과 심리적 역할이 각광받고 있다.

① 기능적 역할

10) 박재연(2009), 『도자식기의 디자인요소가 사용자 감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디자인문화학회), p125

11) 신희창,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

테이블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음식을 담아내는 것으로 그 기능에 충실하며, 이는 음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과 동시에 서로 다른 음식이 섞이지 않게 구별해 주며 위생적 개념이다. 그리고 생활용기로서의 친근감 사용상의 편리성, 세척의 용이성 및 나아가 수납의 용이성까지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능을 말한다.

② 심미적 역할

현대에 이르러 푸드스타일리스트(Food Stylist), 테이블코디네이터(Table Coordinator) 등 새롭게 등장한 직업으로 현대인들의 음식을 대하는 시각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회변화의 한 형태이다. 이들은 테이블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담겨지는 음식을 돋보이게 하게 한다. 또한 폭넓게는 목적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미적 감각의 대상으로써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③ 심리적 역할

식기의 형태적 특징을 용기로서 충실한 용(用)의 역할 외에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의 독립된 공간 개념을 갖는다. ‘무성인가 담을 수 있다’라는 용도면에서만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담아내는 심리적 사유의 공간으로도 작용하며, 이는 ‘정신적 의식’을 위한 심리적 역할의 기능으로 종교적, 의식적인 목적으로 사용 되는 식기도 있다.

3) 식문화에 따른 테이블웨어 분류

식문화란 식생활에 관한 문화를 말한다. 문화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인간이 ‘무(無)’에서 벗어나 ‘식(食)’과 관련된 목적과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소득을 말한다. 식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종교, 문화, 지역, 국가, 개인 등 매우 다양하며 식문화 또한 각 민족과 나라마다 매우 독특하다.¹²⁾

테이블웨어는 식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테이블웨어의 기본적인 형태는 동·서양의 식문화, 식습관 등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테이블웨어가 형성되었다.









동양의 식문화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음식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형식이 아닌 한상에 차려 놓고 먹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주·부식 분리형 문화가 명확한게 특징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음식 문화가 발달하여

12) 전혜연, 「금속제 테이블웨어의 유기적 표현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름철에는 자기 재질을, 겨울철에는 유거나 은기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식기의 종류로는 주발(사발), 바리, 탕기, 대접, 보시기, 조칫보, 쟁첩, 종지 등이 있다.

서양의 식문화는 테이블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개인 접시에 옮겨 담아 식사를 한다. 이런 서양의 식문화는 평등, 나눔, 공동체 정신 등을 의미한다. 서양의 테이블웨어는 17~18세기 이후 서양 식문화의 정착과 도자산업의 발달로 재질과 색상 디자인 면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진 테이블웨어를 생산하면서 양식문화와 식기가 세계적으로 보급된 계기를 맞았다. 서양의 테이블웨어의 종류는 식사용 식기인 플레이트(Plate), 볼(Bowl), 컵(Cup) 등이 있으며 서브용 식기인 티포트(Tea pot), 소스 보트(Sauce and boat), 트레이(Tray) 등이 있다. <표 1>, <표 2>

〈표 1〉 한국의 정통 한식기

분류	정의	사진
주발(사발)	밥을 담는 그릇을 주발이라 하고, 국을 담는 그릇은 탕기라 하며, 찌개를 담는 그릇은 조칫보라고 한다. 이 세 종류의 그릇은 모두 모양이 같고 크기만 다르다.	
바리	여자 밥그릇을 말하며 사발보다 약간 부르고 아가리가 좁아지는 모양에 꼭지가 달렸다.	
탕기	국이나 찌개를 떠 놓는 그릇으로 모양을 주발과 비슷하다.	
대접	사발보다 큰 형태로 국, 면류를 담는 그릇으로 오늘날 보통 국그릇이라 칭한다.	
보시기	사발과 종지의 중간의 크기로 주둥이의 부위와 아래 부위가 거의 같은 크기이다. 용도는 밥상에 김치를 담는데 쓰인다.	
조칫보	국물을 적게 만든 찌개나 찜을 이르러 조치라고 하며 조치를 담는 용기이다. 보시기보다는 조금 크고 운두가 낮은 그릇이다.	
쟁첩	쟁첩은 접시이며 뚜껑이 없이 벌어진 그릇을 말한다. 접시는 원래 우묵한 사발의 일종이었으나 점차 운두가 낮고 납작한 그릇으로 변했다.	
종지	보시기보다 형태가 작고 초장이나 간장을 담아 밥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종주’ 라고도 한다.	

〈표 2〉 서양의 테이블웨어

분류	정의	사진
플레이트(Plate)	플레이트(Plate)는 불어 ‘Plat’에서 유래 된 것으로 원형 모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평면적이 형태로 깊이가 거의 없다.	
볼(Bowl)	평면형 식기인 플레이트(Plate) 보다는 깊이가 있는 그릇으로 입체형 식기이다. 수프와 국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컵(Cup)	식사가 끝난 후 디저트 때 커피나 차를 마시기 위해 사용되며, 컵과 소서(Saucer)가 함께 세팅된다.	
티포트(Tea Pot)	티를 우려내고 서브하기 위한 도구로 둥근 모양의 티포트는 티의 점핑(Jumping)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스 보트 (Sauce and boat)	샐 러드 드레싱이나 스파게티 소스, 스테이크의 그레이비, 카레 등을 넣는 보트 형태의 그릇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테이블웨어는 일정한 스타일이나 정해진 패턴이 아닌 세계적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양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부분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은 것도 사실이지만, 반찬의 수와 그 내용에 변화가 있을 뿐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과 함께 어울려 먹는 식생활의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¹³⁾

13) 최준식,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4 p.50

Ⅲ. 작품제작 및 해설

1. 제작의도 및 작품계획

본 연구는 인간의 손에 의한 감각적 표현을 강조할 수 있는 수공예적 장식이 가미된 테이블웨어를 연구하고 제작함으로써 도자장식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고 수공예적인 행위의 가치를 재발견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테이블웨어의 구성은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찬기를 선택하였다. 표면장식은 우리나라의 전통 도자장식 기법인 인화상감기법을 중심으로 인화상감 기법을 보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첩분장을 응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효과를 강조하고, 시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테이블웨어와는 다른 장식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인화상감기법과 중첩분장기법을 응용한 테이블웨어의 연구의 제작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이블웨어의 종류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식사용 식기로 제한하였다. 기물의 형태는 장식적 요소에 의해 기능이 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평면적이고 직선적으로 디자인한다.

둘째, 기물의 제작방법은 도구를 사용하여 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조와 소성 중 변형이 덜 되는 물레 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셋째, 기물 표면에 인화하여 음각할 수 있는 도구를 자연물과 인공물에서 선정하여, 도구에 의해 나타나는 문양의 특징을 실험한다.

넷째, 선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문양을 겹쳐서 찍기, 띄어서 찍기 등 문양을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색안료 테스트 실험을 통하여 작품에 맞는 색화장토를 제작하고 테이블웨어에 알맞은 색상을 선정한 뒤 동일배색, 유사배색, 반대배색, 멀티컬러 배색 등을 활용하여 중첩분장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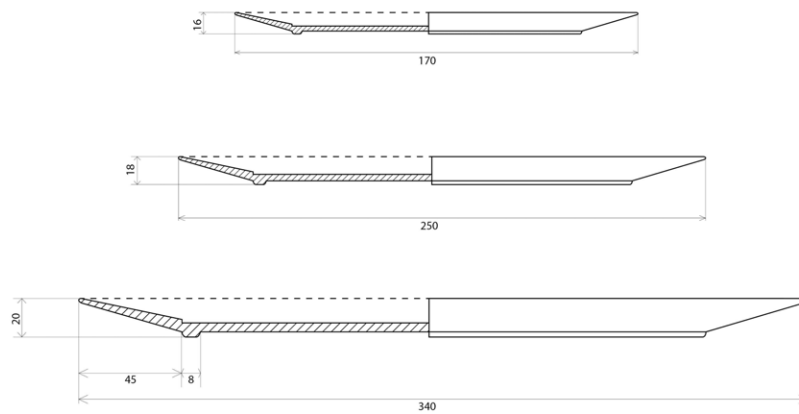
여섯째, 850℃에서 초벌이 완성된 기물은 사포를 이용하여 중첩분장된 부분을 연마한 후, 시유는 내부는 투명유로 외부는 무유로 시유하여 1250℃로 산화소성 후 연마한다.

2.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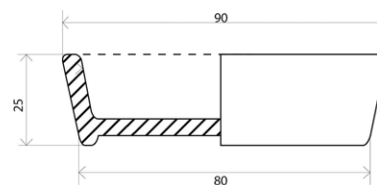
1) 형태 및 성형 계획

(1)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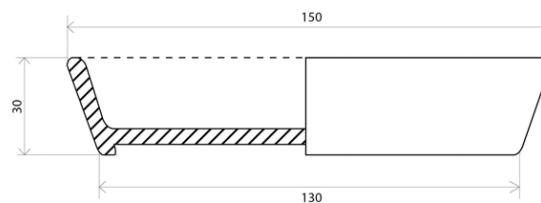
기물의 형태는 현대인의 감성을 충족시키며, 인화상감의 장식 및 연마 등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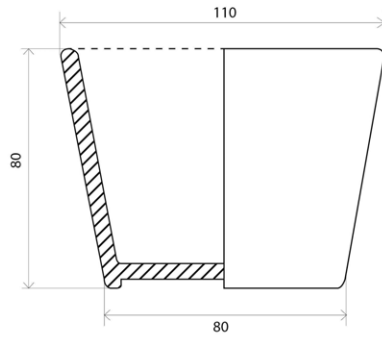
[도 21] 접시 Set 도면 /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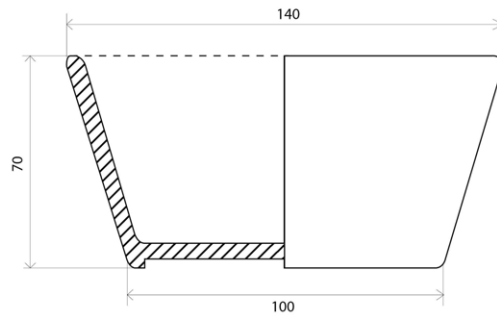
[도 22] 찬기小 도면 / 단위(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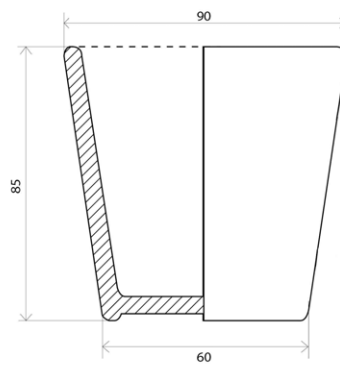
[도 23] 찬기中 도면 / 단위(mm)



[도 24] 밥그릇 도면 / 단위(mm)



[도 25] 국그릇 도면 / 단위(mm)



[도 26] 컵 도면 / 단위(mm)

(2) 소지 및 성형

소지는 색화장토 장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바탕이 되고, 산화소성에서도 백색도가 높은 현대소지의 백색소지인 4B를 사용하였다. 4B는 물레용 백자이며 실크본 소지로 백색도가 뛰어난 소지이다. 백색소지는 점력이 약하고 입자가 고와 성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성형과정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철분같은 성분이 재벌 후에 들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백색소지는 제작과정 중에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재벌 후에는 어떠한 다른 소지보다 강도가 높고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형기법은 기물 표면에 문양을 새기기 위해 도구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2차 소성 후에도 기물에 변형이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물레성형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물레성형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의 원심력에 의해 즉각적인 형태 제작이 가능하여 직선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를 보다 쉽게 제작 할 수 있다.

물레성형을 통하여 완성된 기물은 습도상자에 보관하여 기물 전체의 습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단계를 거쳐 기물표면에 도구를 사용하여 압인하여 음각 후 중첩분장 하여 화장토가 깎아내기 위한 적합한 건조상태가 되면 문양의 상태를 조절하여 깎아내었다.

2) 인화상감기법의 도구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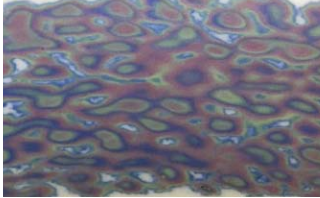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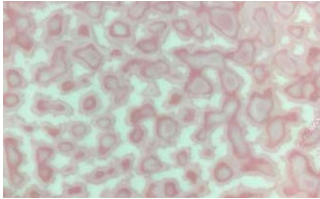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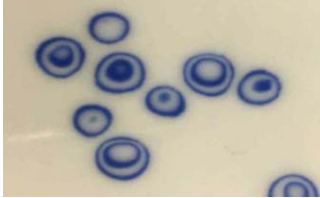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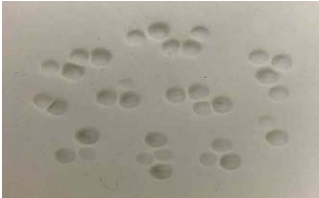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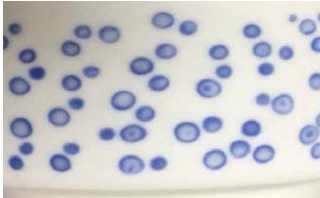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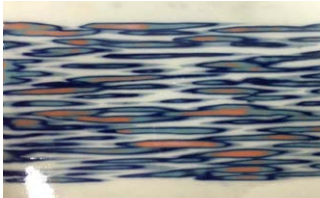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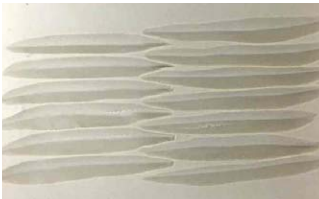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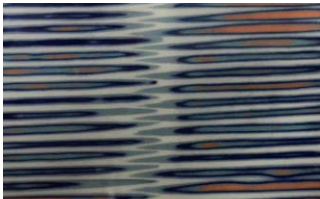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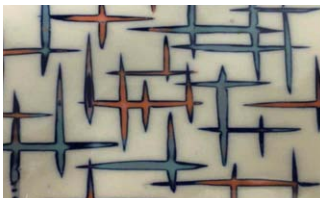
(1) 인화상감기법의 도구와 효과

본 작업에서는 일반 분장기법이 아닌 중첩분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색화장토를 중첩하여 바르기 위해서는 기물 표면에 문양이 깊고 넓게 형성돼야 한다. 따라서 깊고 넓게 압인 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인 돌멩이와 인공물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인 볼툴(Ball Tool)과 조각도를 각각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압인하는 도구에 따라 나타나는 문양도 깊이와 넓이가 다양하지만, 압인하는 방법에 의해 나타는 문양도 다양하다. <표 3>은 돌멩이와 볼툴, 조각도를 각각 사용하여 압인하여 나타난 문양과 중첩분장 후 나타나는 효과를 사진으로 정리하였다.

〈표 3〉 도구와 도구에 의한 효과

도구	물레성형 후 음각	중첩분장 후 효과
<p>돌맹이</p> 		
		
<p>볼툴 (Ball Tool)</p> 		
		
<p>조각도</p> 		
		
		

3) 화장토 제작 및 색화장토 실험

(1) 화장토 제작

화장토 제작에 있어 기본원료가 되는 소지는 현대소재의 4B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먼저 4B를 완전 건조 시킨 후 완전 건조된 흙은 유발을 이용하여 입자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가루로 만든 소지와 물을 72:28 비율로 혼합해준다. 혼합 과정에서는 일반 화장토를 제작할 때보다는 물의 양을 적게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화장토를 바르기 과정 전에 굽을 깎는 과정과 기물표면을 압인하여 음각하는 작업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모두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작업과정에서의 기물보다는 건조가 더 진행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기물의 건조 상태를 고려하여 화장토의 밀도가 너무 낮으면 화장토 분장 후에 건조나 소성 중 생기는 갈라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2) 배색을 위한 색화장토 실험





테이블웨어에 사용되는 색에 따라 작용하는 의미가 다르며 어떠한 색을 배합, 배색하는가에 따라 테이블웨어를 포함한 식공간의 이미지는 달라진다. 따라서 시각적 요소 중에서도 색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식공간을 꾸미고 음식을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색의 배합이 매우 중요하다.

〈표 4〉 색채의 의미

Color	감정적 작용	기후적 작용	공간적 작용
Black	억제하는, 말이없는		경계가 없음
White	억제하지 않는		눈에 띄게 가까움
Blue	차분한	차가운	거리가 있음
Violet	공격적, 낙담시키는	차가운	근처에 있음
Brown	자극하는	중성적	아주 가까이 있음
Yellow	자극하는	아주 따뜻한	가까이 있음
Orange	자극하는	아주 따뜻한	아주 가까이 있음
Red	흥분된, 아주 자극적	따뜻함	가까이 있음
Green	아주 조용함	아주 차가움	머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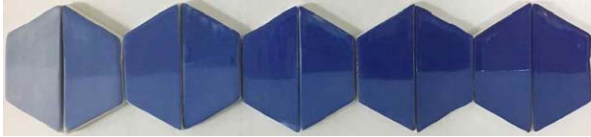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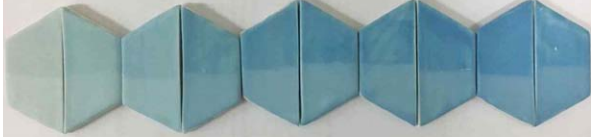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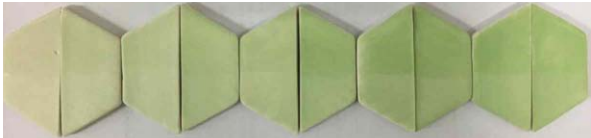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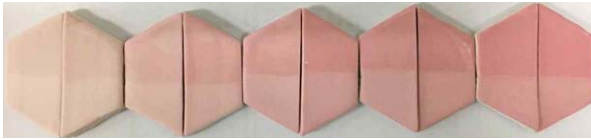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일이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색채조화라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보편적 원리나 법칙이 있으며 배색에 따라 그 느낌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색의 종류에는 동일배색, 유사배색, 반대배색, 멀티컬러배색 등이 있다.

〈표 5〉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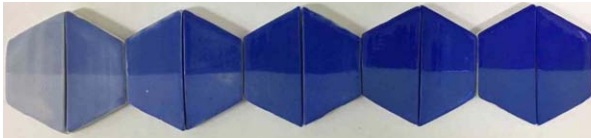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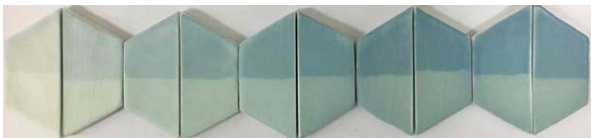





배색	배색그림	배색효과
동일배색		같은 색상이라도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준 배색을 말한다. 색상에 따라 따뜻함, 차가움, 부드러움, 딱딱함 등의 통일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주로 계절감과 온도감을 표현하는 배색에 사용된다.
유사배색		빨강과 노랑, 파랑과 남색과 같이 색상이 차이가 근접한 유사한 배색을 말한다. 유사 배색은 친근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협조적이고 온화함, 상냥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반대배색		색상환에서 1개의 색상 정면을 보고 있는 5개의 색상을 뜻하며, 색상환에서 거리가 먼 보색 관계에 있는 배색을 말한다. 반대 배색은 가장 자극적이며 동적인 생동감을 준다.
멀티컬러배색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배색이며, 즐거움, 화려함 등을 표현하기 쉽다. 고채도의 다양한 색상으로 배색 할 경우 적극적, 활기참 등의 활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배색이 여기 속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배색을 활용한 중첩분장을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색상의 색화장토 시편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안료 비율에 따른 색화장토 실험을 진행하였다. 색화장토 테스트를 위해 사용한 안료는 석산도재의 고화도 안료로 총 11가지 색상의 안료를 이용하여 1%에서 10%까지 10단계의 색화장토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6〉, 〈표 7〉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의 색안료 테스트 실험표이며, 고화도 안료는 주로 산화소성용으로 환원소성에서는 색이 불분명하게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6〉 산화소성 색화장토 실험

안료 색상	안료 양(1~10%)
Black	
Gray	
Co. Blue	
T. Blue	
M. Blue	
Irs. Green	
Y. Green	
Yellow	
Purple	
L. Pink	
L. Orange	

〈표 7〉 환원소성 색화장토 실험

안료 색상	안료 양(1~10%)
Black	
Gray	
Co. Blue	
T. Blue	
M. Blue	
Irs. Green	
Y. Green	
Yellow	
Purple	
L. Pink	
L. Orange	

5) 시유 및 기물 표면 연마

모든 기물은 1차 소성 후 연마, 2차 소성 후 연마 총 두차례의 연마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1차 소성은 소성 후 중첩분장 된 표면을 흐르는 물에 연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지고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벌온도보다는 높은 900℃에서 소성하였다. 1차 소성 후 색의 층을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첩분장 된 표면을 3M 스펀지 사포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연마방법은 3M 스펀지 사포는 #320~#600메쉬(Mesh)인 Super Fine부터 #800메쉬인 Ultra Fine, #1200메쉬인 Micro Fine 제품 순으로 흐르는 물에서 연마하였다.[도 27]



[도 27] 초벌 후 3M 스펀지를 이용한 사포 연마과정

2차 소성 전 시유는 기물 외부에는 색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무유로 진행하고, 기물 내부는 실사용에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유리질화하기 위해서 고화도 투명유를 사용하여 1250℃에서 산화 소성을 하였다. <표 8>

<표 8> 투명유 조합비(%)

원료	장석	규석	석회석	카오린	탄산바륨
조합비	40	20	15	5	20

2차 소성 후에는 기물 외부 표면을 먼저 다이아몬드 블럭사포 #400메쉬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연마하였다. 그리고 물레 위에 기핀그립(giffin grip) 사용하여 기물을 고정 시킨 후 전동 드릴에 다이아몬드 패드 #800메쉬를 부착하여 연마하였다.

3. 작품해설

[작품1, 2] Inlaid Plate

[작품 1,2]는 현대 식문화에 많이 쓰이는 평접시로 날개가 위로 올라간 접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을 담는 부분에는 시유를 하였고, 이외에 날개 부분에 장식이 들어간 부분에는 무유로 작업하였다. 문양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돌맹이를 중첩되게 찍어서 압인된 문양을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색화장토의 배색은 유사색 배열로 자연스럽고 은은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1]은 접시의 크기의 변화를 통해 대, 중, 소의 접시를 겹쳐 쌓아 문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 Inlaid Plate

ø 170 × 15mm

ø 240 × 18mm

ø 340 × 2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2] Inlaid Plate

ø 170 × 15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3, 4, 5] Inlaid Tableware

[작품 3, 4, 5]은 테이블웨어중 식사용 도구인 밥그릇, 국그릇, 컵, 찬기 로 구성 된 작품이다. 테이블웨어의 형태는 곡선보다는 직선적이며 평면성이 뛰어난 형태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기물과 수직, 또는 좌우 방향으로 기울기를 준 수직적인 배치로 기물의 깊이감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문양의 띠의 넓이를 동일하게 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색화장토의 배색은 보색대비를 통해 보색대비의 특징인 강하고 동적이며, 화려해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의도하였다.



[작품 3] Inlaid Tableware

ø 115 × 75mm

ø 140 × 65mm

ø 95 × 90mm

ø 150 × 40mm

ø 100 × 35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4] Inlaid Tableware

ø 115 × 75mm

ø 140 × 65mm

ø 95 × 90mm

ø 150 × 40mm

ø 100 × 35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5] Inlaid Cup

ø 95 × 9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6, 7] Inlaid Tableware

[작품 6, 7]은 테이블웨어의 구성 중 찬기를 뺀 밥그릇, 국그릇, 컵의 구성으로 형태는 직선적인 원기둥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3, 4, 5]의 문양과 마찬가지로 기물과 수직, 또는 좌우 방향으로 기울기를 준 수직적인 배치하였다. 하지만 앞 선 작품과 달리 문양의 띠가 한 줄이 아닌 넓이가 다른 두 줄의 띠로 표현하여, 두 문양의 띠가 서로 다른 배색의 중첩분장으로 통해 경쾌한 느낌과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주려고 하였다.



[작품 6] Inlaid Tableware

ø 115 × 75mm

ø 140 × 65mm

ø 95 × 9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7] Inlaid Tableware

ø 115 × 75mm

ø 140 × 65mm

ø 95 × 9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8] Inlaid Bowl

[작품 8]은 볼(Bowl)형태로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제작하였다. 문양은 기물의 수평적으로 기물 전체를 둘러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려고 의도하였으며, [작품1,2]에서 사용한 돌맹이보다는 작은 돌맹이로 압인하였다. 색화장토의 배색은 유사색 배색으로 그레이에서 블랙으로 블랙에서 그레이로 유사한 색상으로 중첩분장하여 명도의 차이를 주었으며, 작품간 통일감을 형성하려고 의도하였다.



[작품 8] Inlaid Bowl

ø 110 × 6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작품 9] Inlaid Cup

[작품 9] 테이블웨어의 구성요소 인 컵으로 형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컵 형태이다. 형태는 일자컵 형태로 동일하지만 컵의 크기의 높낮이를 각기 다르게 제작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하려고 하였다. 압인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볼툴(Ball Tool)로 중첩하여 시문하였다. 배색은 유사색 배색으로 톤의 변화만 주어 은은한 느낌과 블루 계열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시원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 9] Inlaid Cup

ø 95 × 90mm

Porcelain, Wheel Throwing, Polishing 1250℃

IV. 결론

본 연구는 과거 분청사기의 인화기법과 상감기법에 사용되었던 소지와 도구를 달리 하여 음각한 뒤 중첩분장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전체적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아닌 각각의 무늬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단위체로 문양이 형성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의 식문화에 맞는 실용적인 형태와 이에 어울리는 수공예의 가치와 시각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장식이 들어간 테이블웨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식문화 연구를 통하여 동일성을 지닌 테이블웨어가 아닌 현대인들의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에 수공예적 장식성이 뛰어난 테이블웨어를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테이블웨어의 형태를 곡선이 아닌 직선적인 면을 부각시켜 디자인하여 도구를 사용한 음각과 초·재벌 후 연마하는 과정에 용이함을 파악하였고 본 연구 도자장식에 있어 적합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화상감기법에서 음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연구해봄으로써 도구의 특징이 들어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음각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문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음각된 문양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중첩분장된 색화장토의 층이 변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중첩분장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작은 단위체로써 문양뿐만 아니라 문양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적인 패턴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장토의 중첩분장을 통한 작업과정 속에서 건조나 소성 중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재료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도자장식 기법을 응용하여 지속적인 기법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도자장식 기법연구가 이루어져 현대 도자장식의 응용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Rudolf Arnheim, 김춘일 역. (1995).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 [2] Gyorgy Kepes, 유한태 역. (1998). “시각언어”, 대광서림.
- [3] 데이브드 라우어, 이대일 역. (2002). “조형의 원리”, 예경.
- [4]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 연구사.

학위논문

- [1] 구유리. (2016). “조선전기 인화상감자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 유명강. (2003).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 설치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고선영. (2003). “중첩 이미지를 응용한 디지털 날염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이정주. (1997). “현대자수의 설치방에 있어서 중첩과 반복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신희창. (2009).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이용한 테이블웨어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이민수. (2012). “이장물레성형기법연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고사이트

- [1] <http://endic.naver.com>
- [2] <http://www.claypark.net>
- [3] <http://www.doopedia.net>
- [4] <http://www.korean.go.kr>
- [5] <http://www.ceramicinfo.org>

Abstract

A Study on the Tableware Using Duplicating Decoration

-Focusing on Inlay Technique-

Park, Sung Min

(Supervisor Kim, Jong Hyun)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ue to the growth of advanced machine civilization that enabled mass production of goods, tableware in modern society has become uniform and lost its uniqueness. However, modern consumer today who lead different lifestyles and exhibit clear personality and desires now prefer tableware with individual personality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generic tableware produced through mass production. Therefore, the need for tableware with that has decoration and artistic qualities in addition to the prerequisite practicality as tableware has emer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aesthetic value of ceramic decoration and exp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by going beyond the material limitation of the past and applying duplicating decoration using color slip. Through inlay technique of Punchong ware, one of the traditional ceramic decoration methods in Korea.

In terms of theoretical background, the research studied the concept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nlay technique, surveyed its features, and analyzed the example of ceramics using inlay techniqu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duplicating decoration and its features manifested in art as well surveying the examples of art work where duplicating decoration was expressed through ceramic works. Finally, the research surveyed the concept of tableware and the role of modern tableware today by examining tableware in general.

In the commentary of work and work process, the study described the

motivation for work, work process plan and commentary for work in respective categories us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erms of work planning, tableware that is appropriate for modern dietary life style and easy to decorate were designed and created. In terms of working planning process, color slip test duplicating decoration test using various tools of inlay technique and color slip test for duplicating decoration color arrangement were performed, which were then applied to surface decoration of tableware.

This research allows us to understand the diverse features of pattern that emerge as result of the use of inlay technique tools and the effect of color arrangement can be expressed through color slip test. Also, by applying the test results of inlay technique and color slip test process to tableware's surface decoration, the decorative effect of object surface can be maximized.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tableware that has both visual aesthetics and practicality and the continuous research in ceramic decoration techniques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odern ceramic decoration.